

투데이 칼럼

탈북 청년들의 북한 폭로

한국의 탈북 청년들이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미국 내 교육·정부 기관을 방문해 토론하며 인권 중심의 대북 정책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인권 단체 '링크(Link: Liberty in North Korea)'는 지난 5월 27일 한국 내 탈북 청년 3명이 미국 주요 도시들을 방문해 북한 주민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 청년들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일정으로 미국 내 7개 주의 대학과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정부, 종교 단체 등 20여 곳을 방문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행사와 미팅을 하고 있다.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본부를 둔 링크의 프로그램 담당자는 "이분들에게 정말 저희가 투자하고 성장을 하는 것을 같이 돕게 되면 이분들이 정말 나중에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분들에게 장학금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멘토십도 진행하고 영어 교습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 청년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예일대와 하버드대, 예프리대, 미국 국방참모대학 등 유수의 대학을 방문해



정복규  
논설위원

북한 인권 실상과 탈북 이야기를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북한에 대해 토론을 했다.

또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미국 의회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주민 중심의 대북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한국의 한 대학에서 보건의학을 공부 중인 어느 탈북민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면서 동시에 스스로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은 고통을 더 이상 겪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한다.

특히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인권 현안을 개

선해야 안보 등 다른 과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행사 시작 전 북한 하면 떠오르는 단어 세 가지를 묻는다. 답은 핵, 김정은, Isolation(고립) 등이다.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탈북민들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해 탈북민들의 세대교체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1세대가 북한 주민들이 겪는 참혹한 현실을 눈물로 알리고 관심을 호소했다면 젊은 세대는 영어와 전문 지식을 겸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유엔 안보리와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해 다양한 유엔 회의와 민간 행사에 참석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고 정책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욱 자신감을 얻고 도전 의지도 다지게 됐다.

이들은 먼저 전문 지식이 있다. 1세대들의 경우와는 달리 젊은 세대들은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전문 지식이 있는 것이다. 또 영어라는 언어를 극복했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의 청년들은 대부분 생각도 합들고 삶도 합들다.

그것이 모두 본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밖에서도 많은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그냥 좀 더 마음을 열고 그 문을 두드리는데 응답을 조금씩 해주면 된다.

함께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테니까 기다려 주기를 바랄 뿐이다. 링크의 '옹호 펠로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이들 탈북 청년 3명은 5월 28일 미국 국무부를 방문해 줄리 터너 북한 인권특사를 면담하기도 했다.

인권 중심의 대북 정책이 중요하다. 북한 청년들의 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인위에서 힘을 합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사설

연명의료 선택권 확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8년까지 360곳으로 확충하고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연명의료 이용자의 선택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이는 완치 목적의 치료 아닌 생애 말기 삶의 질에 목적을 둔 치료와 돌봄을 의미한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이다.

우선 정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난해 188곳에서 2028년 360곳으로 확대하고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을 25.0%에서 5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경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작년

430곳에서 2028년 650곳으로 늘린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상급 종합 병원의 경우 100% 설치돼 있으나 그 외 의료 기관은 설치율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종합 병원의 경우 2028년까지 34곳 증가한 250곳, 요양 병원은 144곳 증가한 280곳으로 설치율을 확대한다. 공공윤리위원회도 지난해 12곳에서 2028년 2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영적 돌봄 및 사별 가족 프로그램 등 서비스도 필요하다. 그밖에 소아·청소년 환자의 가족 돌봄 지원 방안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편안하게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

국내시장 교란 알리와 테무

중국 유통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국내 소비자들과 물류업체가 '대란'을 겪었던 차량용 요소수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 국내 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국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차량용 요소수에 쓰이는 요소를 경제성, 환경 문제 등의 이유로 전량 수입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국 수입 의존도가 전체의 90%가 넘는다.

2021년 중국이 요소 수출을 규제하자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국내에선 차량용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 대혼란이 일었다.

경유(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 필수인 차량용 요소수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전국에 물류 대란이 초래된 것이다.

최근 정부가 나서 요소의 국내 생산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신약 알리·테무가 차량용 요소수를 판매한다면 그나마

중국 플랫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셈이다.

초저가 불량 공세 중인 알리와 테무 탓에 국내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가격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은 남아도는 재고를 세계 시장에 저가로 쏟아 붓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 전략의 첨병인 알리와 테무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동성 등지에 전용 창고를 마련하여 저가 상품을 쏟아 붓고 있다.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소비자들은 당장은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상품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치는 대부분 중국에서 발생한다.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해도 정식 수입이 아닌 '소비자 해외 직구' 형태로 들어오고 있는 탓에 손을 쓸 방도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제1회 세계 감자의 날 축하하는 페루 상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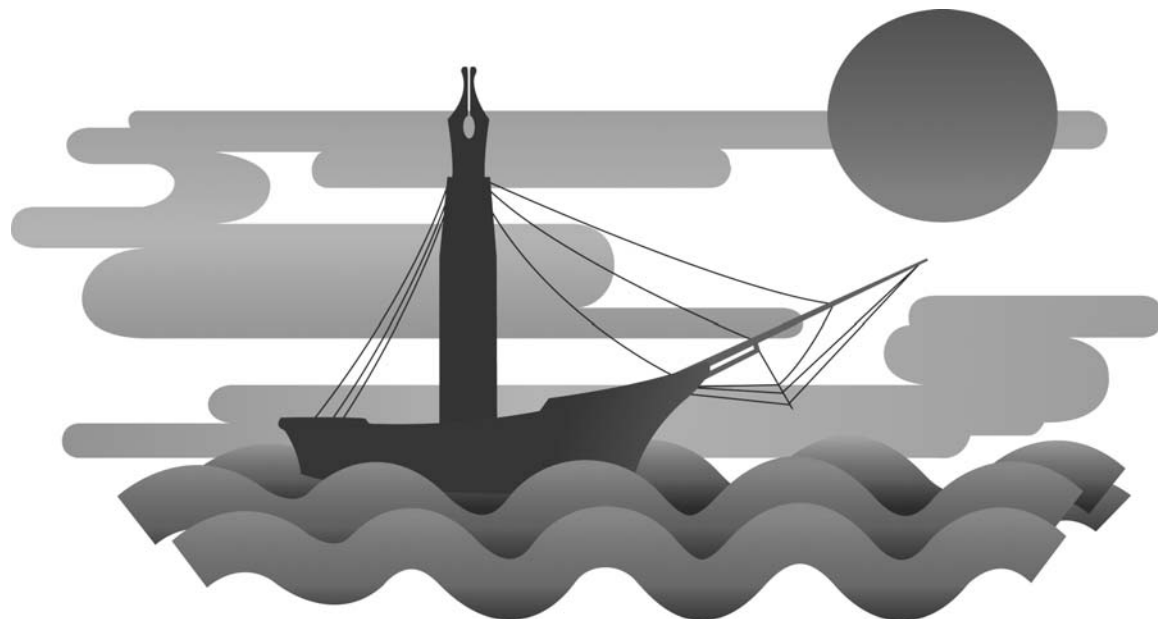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외곽의 농산물 시장에서 '제1회 세계 감자의 날'을 맞아 전통 의상을 입은 한 상인이 감자 매장 앞에서 공연하고 있다. 5월 3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감자의 날'로 이는 감자의 다양한 영양, 경제, 환경, 문화적 가치와 식량자원으로서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2월 UN 총회에서 채택됐다.

자이언트 판다 한 쌍, 스페인 동물원서 공개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스페인 미드리드의 미드리드 동물원에서 암컷 자이언트 판다 '주위'가 대나무를 먹고 있다. 지난달 중국 청두에서 비행기로 도착한 세 살짜리 자이언트 판다 '진시'와 '주위'가 격리 기간을 거쳐 이날 미드리드 동물원에서 공개됐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